

8월 선교소식 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하나이다 " (대상 29:13)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 삶의 만감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준비물들을 건네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 왕의 믿음을 목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한국과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 그리고 선교의 동역자 분들 모두 모두 평안 하신지요? 8월의 끝자락에서 탄자니아 탕가에서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 탕가신학교 소식

1) 제 5회 동창회 소식

지난 8월 7일 부터 11일까지 탕가신학교 제5회 동창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인원은 참석하지 못 하였으나 (47명) 그 어느 때 보다도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크게 3종류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성령론 강의, 그리고 오후에 "은혜로운 부부 거룩한 부부" 라는 주제로 부부 세미나, 매일 저녁 말씀 부흥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강사는 한국의 성결대학교에서 성령론을 강의하시는 배본철 목사님, 부부세미나는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탕가신학교는 두번째 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이며 9월 2일 (토요일)에 3번째 학기를 시작합니다.

2) 장학금 후원 소식

한국의 "열두제자 선교운동" (운영자 안재윤님) 식구들께서 탕가신학교 신학생을 후원하고자 하여 2명의 학생을 추천하여 인적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로 1년 동안의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 지길 기도하며 감사 드립니다.

@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1) 학생들 소식.

탄자니아는 이제부터 중요한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중2학년과 4학년들이 집중적으로 국가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리빙 스톤 학교도 8월 28일 월요일부터 군에서 실시하는 모의 시험과 더불어 전교생 중간 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약 일주일 간의 중간 방학을 갖게 됩니다.

2) 2018년도 신입생 모집.

2018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시험이 9월 23일 수도인 다르에스살람과 본교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였습니다. 대도시의 학교들과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학부모의 날 (Parents Day)

올들어 두 번째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로부터 자녀들의 생활 소식을 듣고 준비한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건축 소식.

1) 고등학교 기숙사 건축.

모든 벽돌쌓기가 끝나고 이제 안 밖으로의 벽바르기(미장일)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그 일이 마무리 되면 창문 및 페인트 작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작업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부탁 드립니다.

2) 농구장 만들기.

도서관 왼쪽 공터에 조그마한 복합 운동장(농구, 족구, 테니스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언덕이라 불도저가 필요하여 지난 2년 동안 기다려 왔으나 저희 학교가 속한 군에서는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몇 해 동안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남았던 장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판단하여 인력으로 공사(우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법)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던 장소가 서서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의 노동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귀한지를 새삼 느끼며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약 2개월 후면 모든 공사가 끝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역교회 소식.

1) Magula 교회 건축

7월 소식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산골 교회 소식입니다. 평지와는 달리 높은 산속에 세워지는 교회라서 모든 건축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과 기술자들의 열심으로 현재 창틀을 끼울수 있는데 까지 벽돌을 쌓았습니다. 소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 이전에 중요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탕가신학교 동창회 때 주 강사님으로 오셨던 배본철 목사님 부부께서 이 산골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 Komsala 교회 헌당 예배.

지난 선교편지에서 소식을 나누었던 Korogwe 지역에 건축된 교회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일(27일)에 헌당예배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충만하여 지역의 영혼 구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 탕가지역의 특별한 소식.

우간다에서 채굴되는 원유를 인도양 해상으로 운반하기 위한 탄자니아와 우간다 정부간의 송유관 연결공사 행사식이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시작하여 탕가 인근 해변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입니다. 행사에 즈음하여 탄자니아 대통령이 잠시 리빙 스톤 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지방 정부에서 세웠으나 안전문제로 취소되어 특별히 학생들에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 박영훈 선교사 출국.

지난 2년 반동안 함께 사역해 왔던 박영훈 선교사(박선교사 장남)가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미국 북버지니아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함께 기도할 제목들

1. 탕가신학교의 세 번째 학기가 원활하게 시작되도록
2. 리빙 스톤 고등학교 기숙사 건축이 계획된 시간 안에 잘 진행되도록
3. 2018년 신입생 입시 관련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지도록
4. 선교사들의 순조로운 비자 갱신과 건강한 사역활동을 위해
5. Magula 교회 건축이 우기철 안에 마무리 되도록

이곳 탕가는 지난 3개월 간 선선했던 날씨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9월 입니다. 새로운 달 9월에도 주의 일을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8년 8월 25일

탄자니아 탕가에서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